



순창군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500만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 순창군 피서지 관광객 급증

### 주말 평균 8천명 · 주중 3천여명... 강천산 · 향가 오토캠핑장 인기

순창군이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500만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1주일 동안 강천산을 방문한 관광객이 3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주말에는 평균 8천명 주중에는 3천여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순창군 인구만큼의 숫자가 강천산을 방문한 수치다.

강천산은 순창군의 대표관광지로 예부터 호남의 소금강이라 불릴 만큼 산세가 수려한 곳이다.

맨발 산책로와 병풍폭포, 구장군 폭포, 숲속 힐링데크를 갖추고 있어 입구에 들어서서는 순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계곡의 물이 맑고 깨끗해 물놀이를 원하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강천산과 더불어 지난해 개장한 향가오토캠핑장도 인기가 치솟고 있다.

향가 오토캠핑장은 야외 야영장 37면 방갈로 6동을 갖춘 대규모 캠핑장이지만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예약이 모두 매진된 상태다.

또 주위에 향가목교, 향가터널 등의 독특한 관광자원이 자리하고 있고 야외 어린이 수영장, 어린이놀이터, 사위장, 생태연못도 갖추고 있어 캠핑과 관광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동계면 삼진강 장군목 주변에도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

이미 삼진강마실휴양속박단지도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예약이 끝난 상태다.

평일 예약도 거의 마감인 압박한 상태라고 운영자 측은 밝히고 있다.

장군목 주변은 요강바위 등 독특한 기암괴석이 자리하고 있어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처럼 순창군 대표관광지들이 인기공룡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 관광마케팅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폭염피해 최소화 대응 '총력'

### 노면살수작업 · 얼음비치 등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8월 10일까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폭염 특별 발령시 시가지 기온저감을 위하여 남문로(시장4가 ~ 천주교) 등 5개 노선 6.3km에 대한 노면 살수작업과 시민 다중이용시설(시내버스 승강장, 쉼터 등)에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얼음비치, 남원장 남(4일, 9일)을 이용 시원한 먹는 물(생수) 제공과 홍보 리플릿을 나눠주는 폭염피해 예방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에서 전개한다.

이번 폭염 총력 대응에는 남원 소방서(시장 이환주)에서 소방차 2대, 남신레미콘(주) (대표 김창환) 레미콘 차량 4대 지원과 남원시 자율방재단 100여명(단장 노시철)이 협력하게 된다.

앞으로도 남원시에서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한 특보상황 전파와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 등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올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활성화 나서

순창군은 간편한 본인서명만으로 인감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이전까지의 인감제도는 주소지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사전절차가 필요하고 도장의 분실, 허위발급, 인감 위조 문제가 종종 발생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미리 등록해 있는 형식이 아니라 신청 시마다 직접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즉시 발급된다.

특히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도 없었던 아니라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관공서를 제외한 은행이나 개인 간의 금융거래에서 상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어 실제 인감증명 대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률은 전국 평균 4.5%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읍·면 민원실의 인감증명 발급 민원인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권장하는 한편, 인감증명서의 주 수요기관인 금융기관, 관공서, 법무사, 공인중개사 및 인·허가 부서 등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도로명주소번호판 설치

임실군은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버스승강장 45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로명 주소안내시설 규칙' 제28조, 제29조에 따라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월 설치지점 조사를 시작으로 조달구매를 거쳐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건물이 없는 산간도로 승강장 등을 대상으로 설치된 번호판을 통해 길 찾기 편의증진 및 불만해소는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안내를 통해 생활안전 서비스 향상 및 도로명 주소 활용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초번호판 도로구간의 시작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로, 기초번호판은 설치 지점의 기초번호를 표기한 번호판을 의미한다.

임실=진총영 기자

## 남원시, 구도심 노후관 대상 정비계획 수립

### 우·오수관로 현황 파악 대책 수립 정비사업 추진

남원시는 2015년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추진 중인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1단계로 구도심 노후관(우·오수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1970년대부터 설치된 우·오수관로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수관로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한 악취 및 관로 파손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는 위와 같은 관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 노후하수관로정비사업[1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1단계 사업은 1970년대부터 이어진 구도심 노후하수관로의 특성 및 노후도를 파악하여 남원[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과 병행 시행을 목표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시설규모 및 경제성이 낮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환경부에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설득하고 있다.

남원시 환경사업소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하수도정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원시 일원의 노후하수관로 정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하수도 시설 확충은 물론,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 개선 등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환경사업소는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예정인 분야별 세부사업 중 하수도 시설 관련 사업에 선제적 대응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서, 교통안전교육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전순홍)는 2016년도 교통사상자 줄이기 일환으로 강사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강사를 선발하여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과 법규위반행위 지속 단속으로 최근 몇 개월간 사망자 사고는 물론, 보행자 및 이륜차, 음주사고 등이 전무하고 기타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 하였으며 고창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실감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체감 안전도에 있어 매우 만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창경찰서는 동료강사 콘테스트 개최, 우수자 표창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으로 교통사상자 감소에 기여했으며 마을회관 등 방문, 노인 상대 보행안전, 이륜차·농기계 운행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또한, 고창읍 일원 불법 주차차 단속으로 교통환경 개선에 나섰으며, 어린이 통학시간대 고창초등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경찰관 배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등 단속으로 보행자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이어 횡단보도 설치 및 속도하향 조정 등 교통시설물 개선으로 보행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교통캠페인 및 교통안전지킴이활동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초, 나라사랑 클래식 콘서트

임실초등학교(교장 함상기)는 지난 26일 오후 1시부터 국내 유명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공연하는 나라사랑 클래식 콘서트를 진행했다.

임실초 미래관에서 펼쳐진 이번 공연은 학생과 학부모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우스콘서트(기존 무대에서 벗어나 연주자와 관객이 함께할 수 있는 곳에서 서로 공감하는 공연)를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수준높은 예술적 클래식 공연을 선사했다.

이번 공연에는 바리톤 김재일,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피아니스트 김지혜씨로 이루어진 3인조 그룹이 초대되어 문화적 해택이 비교적 적은 농촌 어린이들에게 평소 듣기 힘든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다.

또한 수준 높은 음악뿐만 아니라 반짝 반짝 작은 별, 애국가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친숙한 음악부터 '투우사의 노래' 같은 한 번쯤은 들어보지 못한 음악까지 다양한 곡을 선보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임실=진총영 기자

## 순창서, 수렁 빠진 장애인 구조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운) 남계파출소(소장 이동권)에서는 36도가 넘는 폭염속에서 수렁에 빠진 장애인(지체장애 6급) 할아버지를 구조해 화제다.

남계파출소에 따르면 26일 오전 6시 30분경 발길을 하기 위해 사발이를 타고 출타 후 8시간 동안 미귀가한 장애인 할아버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치추적 후 주변수색, 산속 수렁에 빠져 탈진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 신속하게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한 생명을 구했다.

확인결과 고령의 A씨는 눈에 물을 대기 위해 농업용수관정 전원스위치를 켜기 위해 이동중 1.5미터 야산 수렁에 빠져 약 8시간 동안 나뭇가지에 다리가 끼여 있는 채 탈진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병원 치료 후 안정을 찾은 상태이다.

이동권 파출소장은 "36도가 넘는 폭염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면밀하고 치밀한 수색망을 구축,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구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제이앤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튼,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